

12 장. 서론: 예수의 원래 이미지 탐구

A. 주제 (Thesis)

- 우리는 성서, 신조, 교리, 교의, 심지어 종교 자체도 초월하여 예수를 탐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는 온전함 (wholeness)을 향한 길 (the way), 그 여정의 목적지가 아니고 그 목적지로 가는 수단이다. 우리는 거기서 하느님의 신비, 생명의 신비, 사랑의 신비, 초월성의 신비를 응시하고, 이 여정에서 인간의 온전함에 대한 영원한 탐구를 향해 깊이 몰입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pg. 208-209)

B. 문제점 (Problems)

- 1960 년대 이후 세속사회는 극적으로 성장했으나 오늘날 가톨릭과 개신교를 비롯한 종교 공동체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지 못하며 더욱 전통적이고 극히 방어적이며 심지어는 더욱 병적이 되었다. 특히 급진적 개신교 신학자들은 기독교 현실에 대한 비판에 사로잡혀 기독교가 앞으로 발전해야 할 모습을 선명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pg. 207)

C. 논점 (Argumentation)

1. 쇠퇴하고 소멸하는 과거의 종교 이해 →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 → 통쾌한 자유!!
2. 기독교 이야기의 핵심으로 가는 새로운 여정을 위해, 낡은 설명을 용감히 버리라!
3. 그리하면 이제까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음을 감히 약속한다!
4. 기독교 내부에서 시도했던 현대인이 그리스도 이야기를 이해하는 방법:

로마 가톨릭교회	개신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황 요한 23 세 (20 세기 중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대착오적인 교회가 직면한 거대한 문제들을 감지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를 소집 - 과거의 신앙 이해가 오늘의 학문과 상호작용하도록 주선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 위협을 느낀 교회지도자들이 들고 일어남/ “신앙의 수호자들” 요한 23 세 이후 가톨릭교회는 성급하게 퇴각하는 모습들을 보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존 아더 토마스 로빈슨 (19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에게 솔직히 - 개신교가 직면한 문제들을 강력히 제시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하느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를 재고하도록 요청한 것 그러나 오래가지 못함 당황한 개신교 교단들이 반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존 로빈슨과 돈 큐핏은 영국에서 고립 존 힉은 그의 관할교구에서 협박당함 미국의 학자들은 어떤 종교에도 관심이 없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네딕트 16 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명한 가톨릭 사상가들과 독창적 학자들을 공격, 그 결과 오늘날 로마 가톨릭의 학풍은 사제들에게서 사라짐 • 결과: 과거 어느 때보다 현대사회에서 타당성을 잃게 됨 	<p>세속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놀림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이드 기링은 뉴질랜드에서 이단으로 재판에 회부 • 그러나 억눌린 사상은 사라지지 않는다 • 단지 지하로 내려가서 재기할 호기를 기다릴 따름이다
---	--

5. 스펀이 이 책의 2 부에서 하고 싶은 것: 기독교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지도를 그리는 것
6. 그를 위한 첫 번째 과제 → 기독교 역사의 구전 기간 (the oral period) 의 문을 여는 것 → 예수에 대한 어떤 기억이나 말이 기록되기 이전의 시대 → 원초적 예수 체험을 밝히고 오늘날 우리의 탐구에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찾는 것
7. 이 여정은 우리를 예수가 출현한 유대인의 세계 속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다
8. 그러나 궁극적 목표 → 종교를 떠나 예수를 볼 수 있거나 “비 종교인을 위한 예수”를 볼 수 있도록 (“나는 성서도, 신조도, 교리도, 교외도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 자체도 초월하여 예수를 탐구한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신비, 생명의 신비, 사랑의 신비 및 존재의 신비만 응시할 것이다...)
9. 예수가 목적지 자체는 아니다. 예수는 하느님의 경이로 진입하는 입구일 따름이다.
10. 예수의 처음 추종자들은, 스스로를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 (the followers of the way)라고 불렀다. 그리스도의 길은 온전함 (wholeness)을 향한 길, 곧 궁극적으로 실재하는 분을 향한 여정이며, 이를 위한 언어를 아직 찾지 못한 곳으로 가는 길이었다.

D. 평가 (Critique)

-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와 급진적 개신교 신학자들이 기독교 현실에 대한 비판에 사로잡혀 기독교가 앞으로 발전해야 할 모습을 선명하게 제시하지 못했다고 스펀 감독은 평가하고 있다. (pg. 207). 그리고 그는 그들이 갈 수 없었던 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란다고 쓰고 있다. 과연? 기다려보아야...
- 12 장은 나로 하여금 포커스를 예수에서 하느님으로 많이 바꾸어 놓았다 내지는 생각을 해보게 했다 → “궁극적으로 실재하는 분을 향한 여정” [인간의 온전함, 초월성, 생명, 사랑, 인간성, 하느님]

E. 생각해 보기

- 나는 왜 아직도 종교인인가? 내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여정의 목적지는?
- 예수는 나에게 목적지? 수단?